

2009년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방안 공청회 개최



》》》 2007. 8. 2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사무국장 성기철) 교육장에서 “2009년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동부 함병호 사무관은 “안전검사 제도 시행방안”과 충주대학교 백종배 교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84년부터 시행해 온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제조단계에서 기존의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통합하고, 사용단계에서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자율검사프로그램과 더불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주기 및 대상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대한산업안전협회 2007년 교육담당자 직무교육 교육계획 실시



》》》 2007. 8. 16~18일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백일천)은 교육담당자에게 필요한 제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외부 고객 만족을 통해 협회 교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지회 교육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수안보파크호텔(충북 충주)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관내 강북·노원·중랑·도봉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의체회의 및 현장 합동점검 실시

》》》 2007. 7. 25일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은 노·사 자율안전체제 구축 및 관내 건설업 재해 감소를 위해 구성된 강북·노원·중랑·도봉구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의체회의 및 현장 합동점검을 성원산업개발(주) 상봉동 성원상떼르시엘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박정환 산업안전과장 외 근로감독관 4명, 강북·노원·중랑·도봉구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의체회의의 회원 27명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합동점검 후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회의를 실시하였다.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 위험도 개선 안전미팅 경진대회」개최

》》》 2007. 7. 26일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소장 유제선)는 사내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관리감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결하고 안전한 포항제강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위험도 개선 안전미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유제선 포항제강소장은 “박진감 있고 일사분란한 팀웍이 바로 우리 동국제강의 저력이며 이렇게 격변하는 여건 속에서도 모든 종업원이 흔들리지 않고 생산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특히 “부주의와 방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ILS시스템 및 High-Five 활동을 통한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무재해를 기필코 이룩하자” 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실시



》》》 2007. 8. 3일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강원도 홍천군 팔봉산관광지에서 소방방재청, 강원도, 홍천군, 홍천소방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여름 휴가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날 캠페인을 통해 계곡이나 강가를 찾는 휴가객들에게 물놀이 안전 수칙과 예방 요령에 대해 홍보하였다.

대전지방노동청 '자율안전 릴레이' 사업 마무리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명룡)은 제조업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올초부터 추진해온 '자율안전관리 릴레이' 사업이 지난 8월 14일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자율안전관리 릴레이'는 산재에 취약 업종 중 60개 사업장을 선정, 노동청에서 제작한 무재해 상징물을 사업장에 전달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무재해 달성시 다음 사업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또 노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제거 및 재해감소를 위해 사업을 계획·시행해 왔다. 릴레이 사업에 참여한 60개(6개 업종, 업종별 10개소) 사업장은 무재해 상징물을 보관 기관 노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 기간 한 건의 재해도 발생치 않고 다음 사업장에 무사히 전달을 마쳐 당초 계획했던 사업전개 기간을 단축해 사업이 종료됐다. 60여 참여사업장은 전년 동기(7월말) 대비 재해건수가 50%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기간 25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도입·운영했으며 그의 사업장도 'High-Five' 운동을 도입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오는 9월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노력을 지속적으로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체험교육, 안전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